



4월 6일
화요일

보 도 자 료



실과	농업정책과	과장	손명도	팀장	차은령	☎	286-6240
----	-------	----	-----	----	-----	---	----------

전라남도, 여성농업인육성 계획 밑그림 완성

-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삶터일터쉼터 조성에 박차, 2025년까지 5년간 8,331억원 예산 투입 -

전라남도는 지역 농업발전의 핵심축인 여성농업인력육성을 위해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.

이번 계획의 대상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며, 4대 전략 16개 중점과제이다.

4대 전략은 세부 내용은 ▲양성이 평등한 농업·농촌 구현 ▲여성농업인 직업적·사회적 역량 강화 ▲복지·문화서비스 향유 및 건강·안전 제고 ▲농촌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이다.

전남 도내 여성농업인은 총 157천명이며, 도 전체 농업인구 298천명의 52.8%에 이른다.

전남도는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중요도가 한층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번 계획에 권익증진과 복지향상, 전문인력화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.

특히, 새로운 정책변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, 인력확보 등 추진 체계 강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.

또한, 출산·보육·농사일·편의 장비·보건서비스·문화활동 지원 등 일·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을 한층 보강하였다.

아울러 전남도는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한 별도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. 실행계획에는 여성농업인 창업·농식품 유통과정 교육, 여성 친화형 농기계 보급 확대, 청년 여성농업인 정착지원 및 창업농장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포함하였다.

그 밖에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, 행복바우처 지원, 농가도우미, 공동아이돌봄 등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대책도 더욱 보강하였다.

손명도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“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여성농업인이 전문성을 갖고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하는 계기가 되었다”고 강조하며 “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농촌환경이 되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”고 밝혔다.